



인공타액제

요약

인공타액제는 구강건조증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정상보다 적은 양의 타액이 분비되거나 입안의 수분 증발로 인해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는 구강건조증에서 부족한 타액을 보충하고 타액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전해질, 보습작용이 있는 물질 등이 함유된 복합제가 겔제 또는 분무제의 형태로 사용된다.

외국어 표기

artificial saliva(영어)
人工唾液劑(한자)

동의어:

유의어·관련어: 구강건조증 치료제; 口腔乾燥症 治療劑; 타액 대체제

구강건조증

구강건조증은 입이 마른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을 말한다. 건강한 성인에게서 하루에 보통 1.5~2L의 타액이 분비되는데, 이보다 적은 양의 타액이 분비되거나 타액 성분이 변화되는 경우 또는 구강 호흡에 의해 입안의 수분이 증발되는 경우 구강의 건조함을 느끼게 된다. 타액은 수분, 전해질, 당단백질, 항균 효소 등이 포함된 점액질 형태이며, 입안의 점막을 부드럽게 하고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구강건조증 환자는 말을 하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고 구내염, 충치, 입 냄새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약물 복용이 구강건조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항히스타민제, 우울증 치료제, 진정제, 항응

고제, 고혈압 치료제, 항바이러스 등이 구강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밖에 노화, 두뇌 방사선 치료,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의 변화, 술, 담배, 카페인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쇼그렌 증후군* 등과 같은 특정 질환도 구강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쇼그렌 증후군(Sjogren's syndrome, SjS, SS): 침샘이나 눈물샘 등에 만성 염증이 생겨 분비 장애를 일으켜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을 보이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다. 이 질환을 처음으로 발견한 스웨덴 의사 헨릭 쇼그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질환 명칭이다.

약리작용

인공타액제는 구강건조증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타액의 분비량은 증가시키지 않고 타액의 성분을 모방하여 부족한 타액을 보충하고 타액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전해질과 보습작용이 있는 물질, 단미제 등이 복합되어 있으며 인공타액제에 함유된 약물들은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 전해질 성분으로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등이 사용되며, 타액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점막의 보습작용에 도움을 준다.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는 물에 녹는 섬유소의 일종으로 수분을 끌어들이어 보습작용을 한다.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 d-소르비톨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미제의 일종으로 단맛을 내는 데 도움을 준다.

종류

인공타액제는 겔제와 분무제 형태의 제품이 있다.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하다.

Table 1. 인공타액제의 종류

약물		제품 예
전해질	염화칼슘 + 염화칼륨 + 염화나트륨 + 염화마그네슘	드라이문트겔®
전해질 + 기타	염화칼슘 + 일산일수소칼륨 + 염화마그네슘 + 염화칼륨 + 염화나트륨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 d-소르비톨	제로바액®

효능·효과

구강건조증, 구강과 인후 부위 방사선 치료 후 구강 건조로 인한 불편감과 다양한 원인에 의한 타액 분비 감소에 사용된다.

용법

겔제

1회 적당량을 매일 수차례 바른다.

분무제

구강 내 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 구강이나 인후에 1~2회 직접 분무한다.

부작용

인공타액제는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인공타액제에 함유된 전해질에 의해 발진, 발적, 구역, 구토, 구내염,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Stevens-Johnson Syndrome, SJS): 급성 중증 피부 점막 질환으로, 주로 약물에 의해 발생한다. 피부 병변은 대개 홍반성의 반점으로 시작하여 수포 및 피부 박리가 일어나며 심한 전신 증상이나 내부 장기 침범이 동반되기도 한다. 체표면적의 10% 이하에서 표피 박리가 일어난다.

†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Lyell syndrome, toxic epidermal necrolysis, TEN): 임상 증상은 스티븐스-존슨증후군과 유사하나 표피 박리가 체표면적의 30% 이상일 때 TEN으로 진단한다.

주의사항

- 염화칼슘,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달걀(난백)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약물 알레르기, 식물 알레르기 등이 있는 환자의 경우도 사용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 눈에 분무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